

스크린 독과점 철폐하라!

영화계 갑 '극장' 상영작 마음대로 바뀌

황포 방지하려면 '영비법' 개정 시급

영화계의 고질적 병폐인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시민단체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매년 대형 히트작이 나올 때마다 문제로 지적됐는데 올해는 설 연휴 개봉작 '검사외전'이 단초가 됐다.

지난달 전년대비 25%나 영화 관객이 줄어 매출회복이 시급했던 극장은 이 영화에 상영권과 상영횟수를 지나칠 정도로 몰아쳤고, 결국 개봉 열이틀째에 800만 관객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봉투팬더' 예매관객에게 예약취소를 정하고 대신 '검사외전'을 상영한 사실이 알려져 관객들의 비난을 샀다.

"스크린 수가 전체의 70%에 육박한다. 이걸 미친 짓"이라는 분노의 목소리와 함께 '검사외전' 상영시간표를 보여줘 "마치 전철 시간표 같다"고 비웃기도 했다.

그동안 스크린 독과점과 관련, 투자·배급사만 겨냥한 지적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엔 CJ CGV가 계열사인 CJ E&M의 배급작 '봉투팬더'를 빼고 경쟁사인 쇼박스 배급작인 '검사외전'에 상영권을 내줌으로써 결국 영화계 갑은 극장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기업인 투자배급사가 극장까지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지난 12년 간 설 연휴로 기간을 한정해 영화시장분석가 김철호씨가 영화관객인장

권 통합전망의 박스오피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개관 중 3개관(스크린 점유율)에서 '검사외전'이 상영됐다. 상영횟수 점유율은 더 높다. 10회 중 5.2회다. 설 다음날인 9일을 기준으로 매출 점유율 0.1% 이상인 영화는 총 17편이었다. 극장이 '검사외전'을 1회 걸고 나머지 11회로 16개 영화를 번갈아 상영한 셈이다.

설 연휴 박스오피스 톱5 영화를 비교하면 '검사외전'은 5회 전회 상영을 보장받았다. '봉투팬더' 4.2회, '별빈과 슈퍼밴드' 2.1회, '캐플' 2.3회, '보트 소리'는 2.5회를 보장받았다.

'검사외전'의 스크린 점유율은 기존의 최고작인 2005년 실영화 '투사부일체'(23.6%)보다 1.4배 높고 상영 횟수 점유율은 기존 최고인 2013년 실영화 '7번방의 선물'(26.6%)보다 1.9배 높았다. '투사부일체'는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했으나 '7번방의 선물'은 극장 체인이 없는 NEW 배급작이었다.

극장이 특정영화의 상영횟수를 많이 보장하면 당연히 관객은 증가한다. 지난 5년 간 전체상영작의 실적에 이를 입증한다. 관객 수는 스크린 수 및 상영 횟수와 인과관계를 보였다. 스크린보다는 상영횟수가 더 인과관계가 높았다. '검사외전'의 흥행성적을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검사외전'은 9일 하루 117만명을 끌어



온이 '명량'(125만788명)에 이어 역대 일일 스코어 2위에 올랐다. 지금까지 하루 동안 가장 많은 관객을 모은 영화는 3위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115만 5766명), 4위 '트랜스포머'(95만8500명), 5위 '인살'(95만866명)로 전부 100만 관객 영화다. 20일까지 880만명이 본 '검사외전'은 최종 100만 관객을 불러들일지는 미지수인데, 유일하게 역대 2위에 올랐다.

'검사외전'은 회당 106명이 봤다. 한번 상영할 때마다 평균 106명의 관객을 모았는데, 이는 역대 설 영화 1위작 평균인 117명보다 적다. 역대 설 영화보다 더 많은 상영 횟수를 확보했으나 평균 관객수는 역대 7위에 불과했다. 극장이 묻지마식 안일한 몰아주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한 영화인은 작금의 영화관이 "초대형 카지노장 같다"고 표현했다. "재벌이 제작, 투자배급, 극장상영까지 하는 등 3권 분리가 안 돼있다 보니 시쳇말로 유명 배우 안 나오고 제작비 적은 영화는 그 아발로 푸대접이다."

과거 대기업 계열사가 제작한 다양성 영화도 개봉 첫날 오전 7시대, 밤 12시대, 2차례 상영됐다. 이렇게 시간을 주고 극장이 텅텅 빈다고 한다. 정말 너무 한 것 아닌가.

'휴식'들이 '금수저'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인데, 영화관에도 이 룰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국내의 독립영화부터 지예신영화, 대작영화까지 뒤섞여 같은 경기장에서 매우 순위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선수도 체급을 나눠 경기를 하는데 영화관에는 그런 보호장치조차 없다.

더 이상 보호장치 마련을 미룰 수 없다. 지난 몇 년 간 한국영화는 점점 다양성과 실험성을 잃고 있다. 관객이 좋아할 상업영화만 나오고 있다. 몇 년째 국제영화제 진출 소식이 없는 것이 방증이다.

한국경제의 허두 중 하나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차원에서 필요하다. 상업영화 위주로 돌아가더라도 다양한 영화와 공존해야 산업이 더 탄탄해진다. 게다가 영화는 공산품이 아닌 대중문화 상품이다. 크개는 상업영화 배급원 겸영 분리부터 작게는 개봉작에 대한 최소한의 상영횟수 보장까지, 관객수만 늘어날 뿐 다양성은 죽어가고 있는 한국 영화관을 위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영화관의 스크린 독점을 방지하고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를 해소하고 ▲저예산 영화 및 전문상영관 지원을 확대하며 ▲영화관의 불공정 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인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안이 국회에서 의미있게 논의돼 통과되길 바라는 이유다. /정해은 기자

1월 극장 관객수 전년보다 25% ↓

한국영화진흥위원회는 올해 1월 전체 극장 관객 수는 1889만명, 전체 극장 매출액은 13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관객 수는 550만 명(24.9% ↓), 매출액은 438억 원(24.8%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관객 점유율은 한국영화 45.6%, 외국영화 54.4%를 기록, 1월 한국영화 관객 수와 극장 매출액은 각각 763만 명, 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9만 명(45.6% ↓), 501억 원(45.5% ↓) 감소했다.

반면 외국영화 관객 수와 극장 매출액은 각각 926만 명, 7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만명(9.5% ↑), 63억 원(9.5% ↑)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흥행영화는 '히말라야' 전체 흥행순위 25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내부자들'은 189만 명을 기록해 2위에 올랐다. '죽음에서 돌아온 자'가 188만 명으로 3위, '봉투팬더'가 160만명을 기록해 4위에 자리했다.

1월 흥행자 상위 10위에는 한국영화 4편과 미국영화 5편, 영국영화 1편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배급사 점유율을 살펴보면 '히말라야' 등 5편을 배급한 씨제이엔터테인먼트가 관객 수 462만 명, 관객 점유율 27.6%를 기록하며 배급사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내부자들' 디 오리저널' 등 4편을 배급한 (주)쇼박스는 관객 수 256만명, 관객 점유율 15.3%로 2위에 올랐고,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등 5편을 배급한 이십세기폭스 코리아(주)가 관객 수 192만명, 관객 점유율 11.5%로 3위에 자리했다.

'굿 다이노' 등 2편을 배급한 윌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는 관객 수 179만명, 관객 점유율 10.7%로 4위를, '오빠생각' 등 6.5편을 배급한 (주)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는 관객 수 134만명, 관객 점유율 8.0%로 5위를 각각 기록했다.

/정해은 기자

패션모델 최소라 세계가 주목

런웨이부문 4위 · 아시아 1위 선정

패션모델 최소라(24·179cm)가 국제적인 명성을 확인했다. 소속사 YG케이플러스에 따르면, 최소라는 세계 모델들의 순위를 정하는 해외사이트 '모델스닷컴'의 런웨이 부문 4위에 선정됐다. 아시아인 중에서는 1위다.



패션모델 최소라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린 뉴욕패션위크에서 알렉산더왕, 마크제이콥스, 코치, 베라왕, 프 로엔자슬러 등 세계적인 브랜드 17개의 런웨이에 오르는 기쁨을 토했던 데 힘 입었다.

YG케이플러스는 "이번 컬렉션에서 최소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완벽한 워킹으로 패션 관계자들의 극찬을 받으며 글로벌 톱모델에 반열에 올랐다"고 자랑했다.

최소라는 2014년 모델스닷컴 신인모델 톱10에 들었다. 이후 2016 봄·여름 톱쇼에 가장 많이 선 모델로 이름을 알렸다. 이번 시즌에는 런웨이에 가장 많이 오른 모델 3위에 랭크됐다.

특히 최근 코치, 마크 제이콥스 캠페인에 등장하는 등 세계 디자이너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후 런던, 파리, 밀라노 패션위크 등에서도 활약한다.

YG케이플러스 신동선 이사는 "최소라는 해외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는 한국 모델로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최소라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있는 박정림, 신현지, 정용수, 이봄찬, 조효인, 최현빈도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황란과 제이미 리 두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특별한 '리비저닝 한지'

뉴욕서 '한지 특별전' 열린다

뉴욕에서 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지' 특별전이 열린다.

뉴욕한국문화원(원장 오승재)은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지'를 주제로 황란과 제이미 리 두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특별전 '리비저닝 한지(Re:visioning HANZI)'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한지산업지원센터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우리 한지의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 신소재로서의 산업적 가치가 집중적으로 조명될 예정이다.

황란과 제이미 리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는 특히 미주 최대의 아시아문화예술행사인 아시아위크 뉴욕(3월10~19일)에 맞춰 열리게 돼 높은 홍보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따르면 한국의 기록물 유산 11건 중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왕조실록' 등 총 9건이 한지와 연관돼 있다.

내구성과 보존성에서 탁월한 한지는 최근 들어 용·복합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우리 전통 문화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중요한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다.

뉴욕한국문화원은 지난해 사진작가 김형선의 '해녀'전을 아시아 위크에 선보이면서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영국의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등 유럽의 주요 언론 리뷰까지 실린 바 있어 올해 아시아 위크에서도 한지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2월 23일>

<p>▷쥐띠 46년생: 지나친 욕심을 무리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 80년생: 이성을 대할 때에는 조심해야 하는 운. 7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를 거는 사들이 생기는 운. 84년생: 급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p>	<p>▷소띠 46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61년생: 시소한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는 운이다. 73년생: 손아랫사람에게 배울면 후에 큰 이익이 되어 돌아오니 자신의 일 처리를 적극적으로 도우라. 85년생: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p>	<p>▷호랑이띠 50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다. 62년생: 구설로 인해 고민한 일이 생기니 불필요한 말을 삼가라. 74년생: 손재주가 따르는 운. 86년생: 문서작성, 문서볼 주교보는 일에 좋은 운.</p>	<p>▷토끼띠 51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받으니 결과는 좋으니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다. 63년생: 타인을 도와주면 공이 돌아온다. 75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생기는 일이 발생한다. 87년생: 어차피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p>
<p>▷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좋은 결실을 맺는 운이다. 64년생: 자신보다 약한 사람과 함께 일을 진행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좋은 자료가 제공된다. 76년생: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좋은 결실이 따른 것이다. 88년생: 지금은 준비하는 때이니 욕심을 금물이다.</p>	<p>▷뱀띠 53년생: 의무적으로는 좋은 일이 생기니 내부적으로는 다름이 일어나니 주의하라. 65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화합이 필요하다. 77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뒷사람과 함께 움직여라. 89년생: 결손회와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 법임을 잊지 마라.</p>	<p>▷말띠 54년생: 먼저 배울면 후에 얻게 될 것이다. 66년생: 이통 행동 변화는 가지게 되면 운. 78년생: 임행할 일이 있으면 협성에 주의하고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하는 운이다. 90년생: 침체 되어있던 운은 지나가고 활기찬 운이 도래.</p>	<p>▷양띠 55년생: 동기간과 함께 하면 기쁜 일이 생기고 웃을 일이 많아지는 좋은 운이다. 67년생: 무난한 운이다. 79년생: 이성을 조심해야 하는 운. 91년생: 건강에 주의하라.</p>
<p>▷원숭이띠 56년생: 동성과 함께 일을 진행하기보다 이성과 함께 진행 하라. 68년생: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80년생: 때로는 잠시 쉬었다가 움직이는 것도 좋다. 92년생: 정신적, 체력적으로 소모는 많으니 거두어들이는 결실은 적다.</p>	<p>▷닭띠 57년생: 일을 시작해보자 좋을 것이 있는 운이다. 69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배신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하니 마음을 비우고 함께 일을 도모하자 마라. 81년생: 일을 삼가는 것이 상책이다. 93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좋은 결과는 얻게 되는 운.</p>	<p>▷개띠 46년생: 작은 문서를 읽거나 움직이는 것은 무방. 58년생: 재물운은 좋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운이다. 70년생: 실수를 하거나 판단 오류를 범하게 되니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라. 82년생: 인에서 활동하기 보다는 밖으로 나가야 좋은 운.</p>	<p>▷돼지띠 47년생: 뒷사람으로 인해 근심 걱정 확 일이 생기니 미리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라. 59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1년생: 실수를 하거나 판단 오류를 범하게 되니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라. 83년생: 손아랫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라.</p>